역사 논란 SBS ‘조선구마사’ 여론 이어 광고까지 등 돌렸다

기업들 잇단 광고 중단…지자체는 지원 철회
‘박계옥 작가’ 불매 조짐도…혼란 더 커질듯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 관련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광고나 제작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이를 철회하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선구마사’는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퓨전 사극 장르를 표방한 드라마. 태종의 아들인 충녕대군이 조선의 기생집에서 구마 사제에게 월병과 중국식 만두, 피단(오리알을 삭힌 요리) 등을 대접하는 장면과 일부 설정 등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 모았다. 극중 태종이 환시와 환청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설정도 불만을 샀다.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의 고대사가 중국 역사’라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 중국 측의 ‘동북공정’과 관련짓는 시선까지 나왔다.

이에 제작진은 잇따라 사과 및 해명하며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재결방과 함께 내용 재정비를 약속했다. 하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광고 줄줄이 등 돌리기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조선구마사’ 방영 이틀 만인 이날 오후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만 3900여 건에 달한다. 8.9%(이하 닐슨코리아)로 시작한 시청률은 23일 6.9%까지 곤두박질쳤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비판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급기야 드라마 광고와 제작을 지원한 기업이 이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 에이스침대, LG생활건강 등 협찬과 제작 지원 업체들이 광고 편성 중단을 결정하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장소 제공 등 드라마 제작 지원에 나선 전남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철회했다.

일부 시청자는 대본을 쓴 박계옥 작가가 전작인 tvN ‘철인왕후’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점, 최근 중국 콘텐츠 제작사인 항저우쟈핑픽처스유한공사와 집필 계약을 맺은 점 등을 들어 “박 작가의 작품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동조?”

여기에 최근 중국 측의 ‘문화 동북공정’ 움직임이 심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SNS를 통해 “이미 중국 누리꾼들이 웨이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펼치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쏟아지는 비판에 제작진은 결국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하고 29·30일 방송을 결방한 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방송한 1·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제작진은 24일 “일부 의복 및 소품이 중국식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를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향후 방송에서 해당 부분을 최대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100% 국내 자본 드라마”라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男실업핸드볼팀 ‘SK 호크스’ 11명 확진

첫 의심증상 후 6일만에 검사…늑장대처 논란

청주에 연고를 둔 남자실업핸드볼팀 SK 호크스 선수단에서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4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선수 8명, 감독 1명, 코치 1명, 전력분석원 1명 등 이 구단 소속 13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증상을 보인 선수단은 23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2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다. 지표 환자(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접촉자와 이동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다. 선수단 전수 검사는 끝난 상태다. 2016년 청주를 연고로 창단한 SK 호크스는 지난달 9일 무관중으로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 뒤 시즌을 마쳤다.

청주 | 뉴시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오늘 오후 7시 20분 ‘통산 80번째 한일전’ 앞둔 벤투 감독

“한일전 의미 존중…이강인·정우영 기대”

손흥민 유럽파 대거 불참 속 주목
“짧은 훈련이지만 잘 살피고 활용”
첫 A매치 정우영 “책임감이 크다”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통산 80번째 한일전을 하루 앞두고 필승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대표팀은 25일 요코하마 닛산스타디움에서 일본과 친선 A매치를 치른다. 친선경기 형태의 한일전은 2011년 8월 ‘삿포로 참사(0-3 한국 패)’ 이후 10년만이다. 역대 전적에선 우리가 42승23무14패로 크게 앞서있고, 최근 전적에서도 2연승 포함 3경기 연속 무패로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부담은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무리한 원정 A매치가 추진됐다는 여론이 강했고, 대표팀 차출 과정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햄스트링 부상, 황희찬(라이프치히)은 독일 내 방역지침에 따라 일본행이 무산됐다. 다른 유럽파 및 중국파도 다수 합류하지 못했다.



이강인(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0년만의 한·일 친선 A매치를 하루 앞둔 24일 결전장인 요코하마 닛산스타디움에서 밝은 분위기 속에 그라운드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 | AP뉴시스

결전을 하루 앞둔 24일 한일 취재진과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을 한 벤투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외에도 모든 포지션에 걸쳐 차출할 수 없었던 선수들이 많고, 훈련기간이 짧지만 잘 준비해 좋은 경기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발렌시아CF)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전력공백이 큰 대표팀에 굉장히 큰 힘이다. 벤투 감독도 “짧은 훈련이나마 함께 하면서 선수를 지켜볼 기회를 갖게 됐다. 훈련에서 잘 살피고 연구하겠다”며 활용 의사를 밝혔다. 생애 첫 A매치가 한일전이 될 수 있는 정우영은 “책임감이 크다. 기회가 주어지면 장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의 중요성에 재차 공감을 표시했다. “특수한 상황에서 과거 경기와 다른 한일전이다. 라이벌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다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주목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도 “공격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가능한 베스트 라인업을 구축해 다이내믹하고 격렬한 한국을 막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22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팀은 이강인과 정우영이 합류한 23일 완전체를 이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외출이 통제된 가운데 매일 진단 검사를 받으며 엄격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런던 신화’ 주역들 “후배들아, 마음껏 뛰고 후회없이 미쳐라!”

창간13주년

한국축구는 2012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메달의 값진 역사를 썼다. 홍명보 감독을 필두로 태극전사들은 똘똘 뭉쳐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 못지않은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어느덧 9년이 흘렀다.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런던의 영광을 경험한 주역들이 스포츠동아를 통해 당부의 편지를 전해왔다. 당시 주장으로 맹활약한 구자철(알 가라파SC)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 후회 없이 미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한 시대 최고의 기억을 공유한 10명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시상대 선 그때, 지금도 생생”

●구자철(1989년생·알 가라파)



올림픽은 인생 최고의 무대였죠.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걸린 태극기, 시상대에 올라간 순간은 지금도 생생해요. 태극마크를 달고 미친 듯 뛰었던 느낌이 행복하게 해줘요. 누구나 살면서 꿈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을 텐데, 제게는 런던이 그래요. 후배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후회 없이 미쳐야 해요.

“새로운 경험 당당히 도전을!”

●기성용(1989년생·FC서울)



선수로서, 또 인간으로서 더욱 큰 눈을 뜨게 해준 소중한 기억이에요. 올림픽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올림픽의 경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우리 후배들,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늘 좋은 생각으로 준비해주길 바라요. 특히 우리 팀 (조)영욱이와 (김)진야가 올림픽에서 당당히 도전했으면 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겁니다.

“껍질 깨고 나오는 순간 될 것”

●김영권(1990년생·감바 오사카)

올림픽은 항상 꿈꿨던 무대에요. 올림픽을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긴 시간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린 그런 추억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코칭스태프도, 우리 동료들도, 심지어 상대 선수들까지 얼굴이 생생해요. 모두가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참 행복해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겠지만 도쿄올림픽은 우리 후배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값진 기억이 될 겁니다.

“후배들 성장 큰 밑거름 될것”

●김보경(1989년생·전북 현대)



런던 세대는 긴 호흡으로 준비해왔어요. 동기부여와 팀 목표가 정말 강했죠. 제 축구인생에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대회였어요. 해외 진출과 국가대표로 성장까지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을 마련해줬어요. 도쿄대회가 1년 미뤄졌지만 더 좋은 기회로 여겼으면 합니다. 그만큼 후배들이 성장했잖아요.

“간절함으로 새 역사를 써라”

●이범영(1989년생·전북 현대)



올림픽은 인생 최고의 목표였어요. 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만큼 간절했죠. 연령별대표팀부터 홍명보 감독님, 선수들이 발을 맞춰왔는데 놓칠 수 없었어요. 그저 올림픽만 머릿속에 그리며 쉴 새 없이 채찍질했어요. 올림픽은 지금도 제가 뛰는 동력이에요. 노력의 중요성을 깨우쳤고,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후배들도 간절함으로 무장하면 우리 이상의 역사를 쓰리라 확신해요.

“최고의 기회…부상 늘 조심”

●박종우(1989년생·부산 아이파크)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랍니다. 좋은 결과가 따랐기에 과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죠. 한국축구의 위대한 역사였잖아요. 자부심 자체죠. 다만 부상을 늘 조심했으면 해요. 컨디션이 좋아도 부상은 갑자기 덮쳐오니까요.

“런던올림픽을 뛰어 넘어라”

●오재석(1990년생·인천 유나이티드)



올림픽은 평생의 꿈이었어요. 팀원이 하나가 돼 목표를 쟁취하는 스토리,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할까요? 올림픽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어요. 코로나19로 후배들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라요. 가슴으로 늘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해요. 도쿄 시상대에 태극기 휘날리며 런던올림픽의 성과를 꼭 뛰어넘길 희망합니다.

“꿈의 무대, 행복하게 즐겨라”

●윤석영(1990년생·강원FC)

꿈의 무대였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유럽 진출의 기회도 열렸어요. 축구



뿐 아니라 인간으로 많이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도쿄에선 보란 듯 결승전까지 나가고, 런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섰으면 해요. 즐겁게, 또 행복하게 올림픽을 맞이했으면 해요.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라!”

●백성동(1991년생·경남FC)



인생의 목표였죠. 만만한 상대들은 없겠지만 꺾지 못할 상대도 없어요.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리라 믿어요. 코로나19,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 그런 순간조차 행복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겁니다.

“꼭대기까지 우뚝 서 보자”

●김기희(1989년생·울산 현대)



올림픽은 곧 기회였어요. 그 후 숱한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올림픽을 위해 많이 기다렸고, 런던에 간 뒤에도 계속 기회를 기다렸어요. 묵묵히 준비하면서 그 때를 붙잡겠다는 생각만 해왔어요. 사실 고통스럽기도,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 기회가 왔어요. 도쿄에서 우린 해내리라 믿어요. 꼭대기까지 우뚝 서길 응원할게요. 정리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